

전남도-도의회, 茶산업 등 입법 조례안 갈등

박준영 지사, “특혜·차별” 공포 보류

도의회 “재의 요구땀 세밀히 살펴볼 것”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의원 입법 조례안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의원들이 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을 박준영 전남지사가 공포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조만간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폐회한 제284회 임시회에서 전남도 차(茶)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와 전남도 공동주택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등 3건을 의결했다.

또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시 의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전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도 개정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의결과 집행부 이송 이후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공포되지 않고 있다. 박 지사가 특혜성 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차산업 발전 조례는 일반 농작물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 품목을 지원하는 조례는 일종의 특혜라며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여기에 지원 대상도 막연하게 차산업으로 해 혼란스러운 점도 한몫했다.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공동주택내 놀이시설 지원 조례도 놀이터 80% 이상이 시(市)지역에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군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 놀이시설 지원 사업이 시군의 역할인 데다 연간 10억원 이상되는 사업비 조달도 부담이다.

목포와 여수 등 5개 시지역 공동주택 놀이시설은 전체 898곳 중 81%인 731곳에 달하며 나머지 17개 군지역은 167곳(19%)에 불과하고 특히 신안군은 한 곳도 없다.

전남개발공사 조례도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사전정보유출 우려,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남개발공사가 반대한 바 있으나 원안 통과됐다.

한편 이들 조례는 도의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수정없이 통과됐다.

전남도는 오는 14일까지 차산업과 전남개발공사 조례에 대해 재의 여부를 결정, 도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는 집행부 재의 요구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부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의 요구는 단체장이 의원입법발의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다”며 “관련 실과에서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의결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윤시석 운영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가 오면 다시 한번 세밀히 살핀 뒤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알기쉬운 선거법



〈8〉

광주일보·광주선관위 공동캠페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선관위 신고후 지급 가능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및 실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선거사무 관계자=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과 선거 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가 있다. 이들을 선거사무 관계자라 한다.

활동 보조인은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들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선거사무 관계자를 선임·해임·교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 1인과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5명, 구·시·군의 장 선거 3명, 지방의원 선거는 2명 이내에서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체 선임 수는 최초 선임을 포함해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면 반드시 선거사무장을 선임해야 한다.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선거사무원 선임 수에는 포함된다.

한편,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명 이상의 예비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 관계자로 선임할 수 없다.

◇활동범위=선거사무장은 각종 신

고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선임하는 등 후보자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 밖의 선거사무 관계자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외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선관위가 발급한 표지를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몸에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거사무관계자가 독자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표지를 패용했더라도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당 및 실비 지급=예비후보자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면, 제공하는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수당도 선거의 종류와 신분별로 차이가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선거사무장은 7만원 이내, 구·시·군의 장과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사무장은 5만원,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은 5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에게는 소속된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과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용섭 “광주~부산, 광주~대구 고속철도망 구축”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의원은 9일 “광주~부산·대구 간 동서(東西) 고속 교통망을 확충해 돈과 기업이 찾아오는 경제도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를 중심으로 한 고속 교통 인프라를 폭넓게 구축해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강화와 동서화합을 꾀하고 광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광주 송정역에서 부산까지 철도로 6시간가량 소요되지만, 고속화 철도망이 구축되면 2시간 15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며 “현재 순천~부산 구간의 복선전철 사업이 완료 또는 시행 중이므로 단선 비전철 구간인 광주~순천(104.8km) 구간만 고속 전철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장기 검토 사업으로



계획하는 광주~대구간 고속화 철도사업이 민선 6기 시장 임기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국토부·전라남도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 반영시키겠다”며 “고속화 철도가 완공되면 1시간 35분에 광주에서 대구를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광주~해남~완도 간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며 “광주~해남(69.6km) 간은 금년 하반기 중 실시 설계에 착수해 민선 6기 시장 임기 내에 완공하도록 하고, 해남~완도(19.7km) 간은 임기 중에 착공하도록 기재부·국토부·전남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 당 조직 문제 등 중요 안건을 결정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전했다.

/연합뉴스

北,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재추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회의

북한이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라고

전했다.

북한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김 제1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했었다.

이 매체는 김 제1위원장을 재추대한 것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단결의 유일 중심, 영도의 유일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의지를 과시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15P – 13층

- 실평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 매매가 – 3천2백만원

29P – 사무실 적합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전체 올수리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 2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500만원

(주)오천경매

대표, (062)525-5000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1대1 개인지도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독/공동투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비용으로 처리

남/직원 모집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

남:35세 이하, 운전 및 기타

여:25세 이하, 경리 및 기타

근무조건 / 급여는 상담후 결정합니다.